

자동차보험 제도
개선방안 간담회

2020.3.19.(목) 14:00
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모 두 말 씀

2020. 3. 19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손 병 두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[인사말씀]

□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.

- 오늘 간담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
-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손명수 국토부 차관님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[자동차보험의 특성]

□ 자동차보험은 2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*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

*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: 22,984,097대 ('19년말)

-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나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-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,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,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
- 지난해 2차례와,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,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,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.
-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, 의료, 자동차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.
- 손해율 안정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과 국민의 권익제고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.

-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,
 - 보험업계, 전문가,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TF 운영을 통해 「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[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요지]

- 금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은,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3가지 기본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 - ① 첫째로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등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.
 -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.
 - ② 둘째로 불합리한 보험료·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.
 -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강화, 군인에 대한 배상기준 개선 등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과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 - ③ 셋째로 카풀, 자율주행차 등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운행 방식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.

[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]

- 앞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,
 -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「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」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.

- 이러한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,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.
- 아울러 향후 검토과제에 따라서는 경찰청, 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「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」에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[추가 검토과제 : 경미사고 과잉진료 문제]

- 최근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잉진료 문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 - * (상해 12~14등급 보험금 지급규모) '17년(2.3조원)→'18년(2.7조원)→'19년(3.1조원)
 (상해 1~11등급 보험금 지급규모) '17년(2.0조원)→'18년(2.0조원)→'19년(1.9조원)
-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-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면밀한 실태파악, 관련기관의 연구, 공청회 등을 통해,
 -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끝으로 오늘 관계기관간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'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'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 감사합니다.